수발인력, 전문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이루어져야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와 수발인력 방안 공청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와 수발인력 방안 공청회 및 광주시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동강대학 보건관에서 진행되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인력 방안,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리운영주체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수발서비스 인력의 전문화와 체계화 최우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인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길홍 서울보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는 "현재 주요 쟁점들의 논란 속에서 정기국회에서 심의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최우선적으로 서비스의 질 보장 없이는 무의미하다며 우선적으로 수발서비스 인력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수발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길홍 교수는 "수발인력 체계는 신체적 가사원조와 직접적 담당을 하는 수발보호사, 대상노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사회적 원조와 서비스 관리 등 수발행정 업무 포함하여 신체적 일상생활의 잠재능력 기능 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수발복지사, 수발인정 방문조사, 한정과 서비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수발관리사의 구조로 나뉘며 전문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이러한 수발전문인력이 제도화될 경우 이용자 중심 서비스 질 향상으로 대상자와 가족의 만족 증가, 서비스 질을 향상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 전문 인력양성에 국가의 예산 절약 효과, 수발 전문 인력 관리협회 구축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수발보험제도와 관리운영주체와 관련하여 중앙집권형 관리운영체계, 지방분권형 관리운영체계의 장단점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사회복지환경변화와 수발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역설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의 공익성 획득 필요

주제발표에 이은 기획주제발표에서는 노인수발보험에 대응하는 자활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민숙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상의 간병 인력을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 자활간병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민숙 교수는 "광주에는 500여명의 간병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노인수발보험제도를 통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빈곤 여성들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자활간병사업의 제도 진입을 위해서는 자활후견기관과 자활후견기관의 간병사업단, 사회적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복지서비스 공급 주체와 서비스로 인정하거나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간병사업단 참여주민과 실무 역량 및 물적 자원을 공유토록 함으로서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